

# ‘맹탕’ 세월호 국조...靑 기관보고 버르는 野

## 김기춘 실장 증인 출석 관심...청와대 책임론 제기 총공세 예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동안 기관보고에서는 해경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진도 사고 현지 보고가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일부 위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주 보고 평가는...맹탕과 파행=특위 위원들은 지난주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안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참사 원인 등을 캐물었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핵

심적 내용을 추가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특히 여야 위원 간 고성을 주고 받다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 2일 열린 해경 기관보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에 없는 대통령의 말을 녹취록에 담긴 것처럼 표현하면서 ‘왜곡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김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조사활동 참여를 거부해 한때 파행을 빚었고, 가족들이 여당 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특위지만,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녹취록을 공개해 참사 조동

단계 핵심라인의 대응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이 녹취록으로 청와대가 사고 후 5시간 가량이 흐르도록 실태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금주 기관보고는 청와대가 핵심=이번 주 열리는 기관보고 중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보고가 핵심이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9일에는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관보고가 진행되며 11일 종합질의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광진 의원 발언을 여전히 문제 삼으며 또다시 파행을 위협하고 있어 이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6일 “김광진 의원 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만큼 했다”며 “여당 뜻대로 파행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방송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나 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입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7·30 재보선 브리핑

### 김명진 “24시간 선거운동 체제 돌입”

김명진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6일 “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 될 때까지 선거사무실에서 숙식하며 24시간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하고 예비후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두 번의 당의 전략공천방점으로 총격 받고 상처 입은 광주 시민과 광산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과정중 당이 보여준 절차무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당을 대신해 시민께

사죄하고, 광주의 정치신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날마다 성찰하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꾼으로서 광주의 일꾼이 되어 진정성 있는 변화, 승리를 약속하는 변화에 앞장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장원섭, 통합진보당 광산을 후보 선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병주)는 오는 7월 30일 예정인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장원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투표와 현장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53%의 투표율에 97%의 찬성율을 얻어 후보로 당선됐다.

통합진보당은 중앙당의 최종 검토를 통해 후보를 인준할 예정이다.



### 송환기, 새누리당 광산을 후보 확정

새누리당 광주 광산을 송환기 당협위원장인 송환기 의원은 30일 치러지는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송 위원장은 오는 8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앞서 지난 3일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열고 광주 광산에 송환기 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당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며

“7·30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했다.



### 이개호 “농어업 보조금 지급 대상·규모 확대”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6일 ‘쌀농업직불금 등 23개 농어업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직불금 등 23개 농어업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가구당 보조금은 월 평균 농가가 14만원, 여가가 1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어업 보조금이 농가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및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가 각종 직불금 제도를 통합, ‘소득안정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식의 개악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가 올바른 개선을 만들 수 있도록 감시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대통령, 여야 원내지도부 첫 회동 정국현안 논의

### 2기 내각 마지막 청문회 10일째 유력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10일께 청와대에서 회동해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중이 같은 회동원칙에 합의했으며, 회동 날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9~10일 오후 중 하루를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회동 날짜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참석 대상자로는 원내대표 외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만 청와대로 초청

해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15일 박 대통령이 국회 사랑채를 방문해 여야 대표, 국회의장단과 함께 원내대표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회동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성격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티타임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관피야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7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에 대한 당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무분별한 규제 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장 후보 청문 준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생방송을 하게될 방송사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청문정국’ 돌입 낙마 후보 관심 집중

여야는 이번 주 모두 8명의 장관 후보자(국정원장 후보자 포함)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특히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순으로 잡혀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2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사정상 주인 직매 합니다.  
H. 010 - 6836 - 9400

## 남평5거리 코너 "망"

- 주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6-2번지
- 대지 - 63평
- 급매 - 평당 300만원(일시불 조정 가)
- 주인 직매 - 010.3605.5000

다도읍 ← 남평 시내 → 목포 →  
↓ 광주 ↓